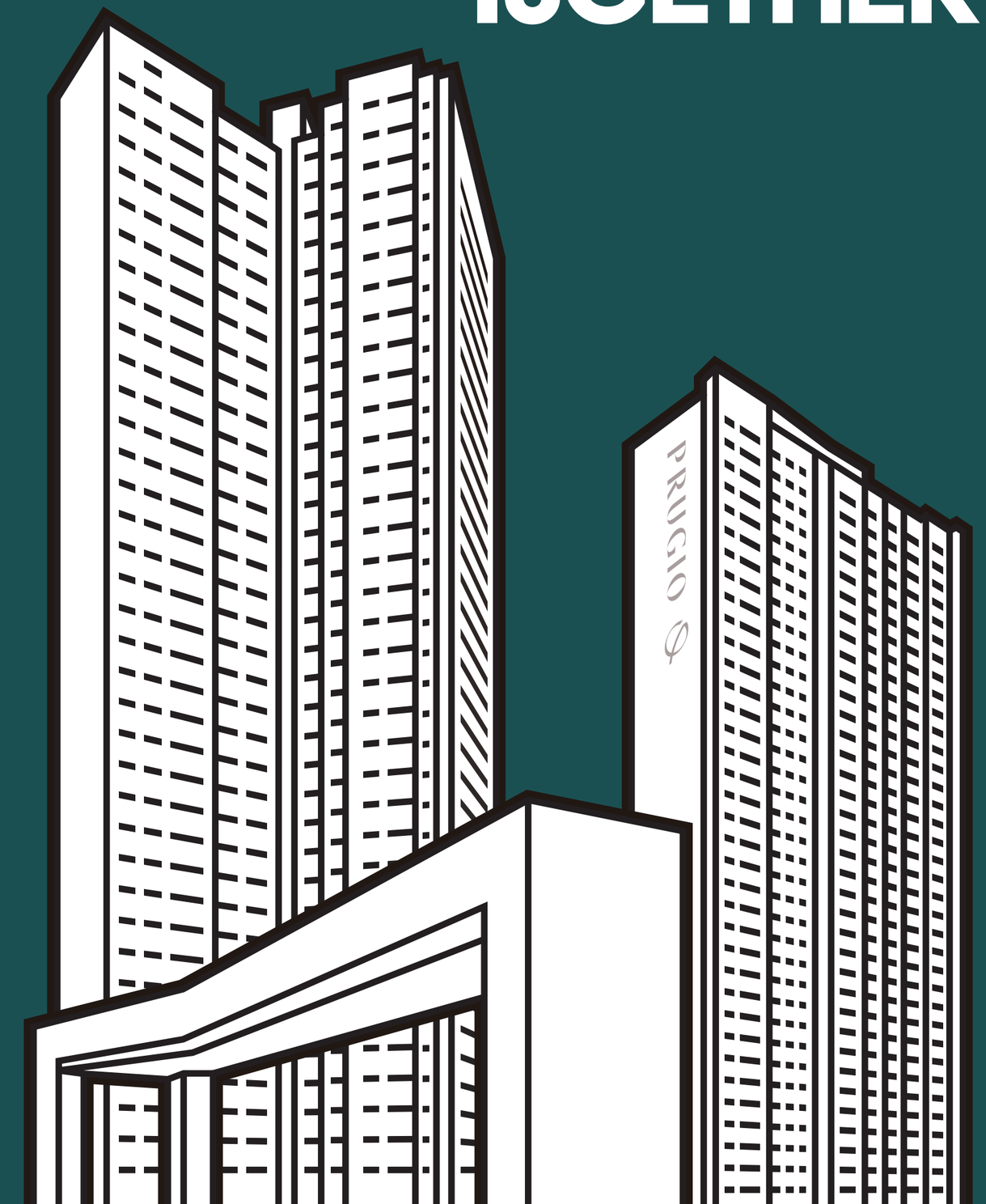
대우건설인

DAEWOO E&C MAGAZINE
2019 7 + 8

BUILD TOGETHER



안산 초지역 베이저타운 푸르지오

DAEWOO E&C

www.daewooenc.com

표지 컬러링 이벤트

지난 5 + 6월호 컬러링 이벤트의 당선작을 공개합니다.
개성이 담긴 각양각색의 표지들이 도착했네요.
이번 7 + 8월호 표지의 주인공은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입니다.
푸르지오의 또 다른 철학과 가치를 담아낸 새 로고가 돋보입니다.
표지에 나만의 색을 입혀 컬러링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컬러링한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컬러링한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컬러링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DAEWOO E&C MAGAZINE
2019 7 + 8
대우건설인

2

20

16

44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사보 편집실)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라픽스 미디어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김진솔
인쇄 금강인쇄

BUILD TOGETHER

2 **스페셜 인터뷰**
현장의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들

6 **테마**
혁신이라는 나비 효과
8 **테마 story**
전지적 혁신시점
10 **테마 poll**
대우건설인 토크쇼
안녕하세요
14 **테마 talk**
혁신, 그것이 알고싶다

16 **선배에게 듣다**
불광불급
조달본부 김성환 본부장
20 **현장에서 찾은 지혜**
푸르지오가 바꾼 생활의 변화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26 **트렌드 인사이트**
지진을 견디고 지진을 대비하는 방법
인방보형 제진댐퍼
30 **직장의 神**
태양을 피하는 방법
32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온 편지
34 **글로벌 TMI**
사우디아라비아 TMI
36 **티타임 도시 여행**
한국의 서원
40 **취미 레슨**
캠핑, 어디까지 해봤니?
42 **출근길 인문학**
당신을 팔로우합니다
관포지교 속 팔로어십

44 **대우건설인 +**
함께 웃다, 함께 시작하다
50 **대우건설인 +**
대대홍 16기, 현장에 가다
52 **대우건설 뉴스**
2019년 7+8월 대우건설 뉴스
56 **독자 편지**

현장의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들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아버지라면, 현장관리책임자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장소장이 시공 전반을 책임진다면, 현장관리책임자는 회계부터 민원 처리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대소사를 챙기는 자상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말하자면 '현장의 살림꾼'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원가 관리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공사 프로세스를 주도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현장소장이 도맡았던 업무를 관리책임자에게 나누고, 그 역할을 분배함으로써 공사 관리의 선진화와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우건설 현장에서 이 전문화된 현장관리책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 현장관리책임자는 120여 명. 그 가운데 '젊은' 현장관리책임자로서 현장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3인방을 만났다.

Heroes in the Field

그토록 바랐던 현장

입사 후 주택사업본부 사업팀을 시작으로 분양, 고객 관리, 입주 관리, A/S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경험해봤어요. 그러던 중 2016년에 당시 기획팀 인사 담당이었던 장진국 부장님께서 "김대리라면 현장관리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해주셨지요. 현장 경험을 무척 원했지만 여성 사무직원을 다소 꺼리는 현장 풍토 때문에 좌절해 있던 저에게는 정말 반가운 제안이었어요. 덕분에 2016년부터 그토록 원했던 현장관리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2018년 9월에 이곳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 현장에 민원 및 관리업무지원으로 파견됐고, 10월에 현장관리담당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현장관리책임자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

현장 업무는 크게 공사, 안전, 공무, 관리로 구분됩니다. 그중 관리 업무는 회계, 자재, 장비, 환경, 인사, 노무, 민원 등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사소한 일까지 관리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지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희생정신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소통이 답이다

약 3년 동안 현장관리담당자로 일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장 근로자나 민원인분들에게 친근감 있게 먼저 다가가고 가까이에서 고충을 나눌 때, 비로소 마음을 열어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현장을 막 돌아다녀요. (웃음) 요즘처럼 무더위가 한창일 때는 보건팀과 함께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일례로 관리자들이 '찾아가는 카페'를 운영해 주 2회 근로자들에게 음료나 수박화채, 커피 등을 전달하고 있어요. 타워 기사에게도 붕대로 커피 배달까지 했었답니다. (웃음) 그렇게 현장분들과 소통하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즐거운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민원인분들과도 잊지 못할 추억이 많은데요. 그중, 민원인 한 분이 민원이 잘 해결되자 겉절이와 보쌈을 들고 현장에 찾아오셔서 맛있게 먹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여자라는 이름으로

여성이라서 현장관리책임자로서 부족한 점은 전혀 없다고 봐요. 오히려 한꺼번에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직무에 여성으로서 제가 가진 장점이 더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아직 여성보다는 남성 관리자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1호 여성 관리책임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이전 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 모셨던 부장님처럼 저도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때로는 친구처럼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관리책임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사우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본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유와 보람이 여기 현장에 있다고.

1호 여성 현장관리책임자로서 선례가 되고 싶다.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 현장
김연옥 과장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싶다.

수지파크푸르지오 현장
박영준 과장

다시, 현장에서
2006년에 본사에 들어갔다가 2012년에 다시 현장에 나와야 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현장 업무도 많이 잊은 터라 뭐부터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다행히 인근에 있는 여러 현장관리책임자분들께 수시로 가서 물어보고 배우고 했습니다. 그때 후배 왔다고 이것저것 알려주셨던 분들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이후로 다양한 현장을 거쳐왔습니다. 수지파크푸르지오는 올해 3월 말에 준공했고, 이번에 여주교동공동주택 현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현장관리책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업무, 그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관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주 업무를 제외하고 경비, 총무, 노무, 자재, 중기 등등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가장 민감할 수 있는 현장 직원들의 복리후생 관련 업무도 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소한 업무가 많지요.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현장에서 누군가 꼭 해야 되는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한마음
사실 현장 일이라는 게 똑같지 않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이라도 결국 준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2-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지요. 때론 부딪힐 때도 있지만, 다시 협력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사용승인 필증을 받아오는 날이면, 공을 돌리면서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요. 마지막에 이런저런 덕담들을 주고받을 때, 현장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인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일하는 일터 만들기
현장관리책임자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일이라는 게 공사팀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관리팀은 공사팀이 현장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우리 관리팀, 정말 좋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관리책임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젊은 사무직 직원들이 현장관리책임자로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사팀이나 안전팀 직원들 보면 저와 띠동갑 이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입장에선 솔직히 제가 마냥 편하진 않을 거예요. 진짜 젊은 관리담당자들이 현장에 많이 나와서 근무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에게 현장관리책임자라는 자부심을 품게 해주고 싶다.

대신2차푸르지오 현장
이봉석 과장

준비된 현장관리책임자
입사 후, 그간 10여 개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본사 및 지역회계팀에서 일한 경험들이 지금 현장관리책임자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 대신2차푸르지오 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 보임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균형 감각
현장관리책임자가 맡는 업무는 다양합니다. 노무, 회계, 환경, 민원, 복리후생 등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인 역량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균형 감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조율해나가는 합리적인 조정자로서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요. 저 역시 조화를 이루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끝냈다는 보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간 다수의 현장을 맡았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늘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공 후 비품과 숙소를 정리하고, 현장 통장을 해지하고, 현장 코드의 회계 잔액을 모두 정리하면서 최종 정리자로서 느끼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끝냈다는 보람과 홀가분함이랄까요. 현장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 것도 저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민원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를 상대적으로 어리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으레 연륜 있는 관리부장님을 생각하시다 보니 저를 책임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때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시간을 더 가지면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주시더군요. '웃픈'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저를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보고는 시급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죠. 동안으로 봐주셔서 당시 기분이 잠깐 좋았던 기억도 나네요. (웃음) 과거에 함께 근무했고,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같은 젊은 관리책임자를 존중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꿈꾸는 일이 되도록
사무직 후배들이 국내 현장을 꺼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건설회사의 꽃은 현장입니다. 결국 수익이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관리책임자가 후배들이 맡고 싶어 하는 보직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고 싶습니다.

혁신이라는 나비효과

innovation

8 테마 story 전지적 혁신시점

10 테마 poll 대우건설인 토크쇼 안녕하세요

14 테마 talk 혁신, 그것이 알고 싶다

build together #innovation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무언가 거창하고 대대적인 변화, 또는 신제품과 같은 결과물만 관련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혁신은 발명이 아니다. 차라리 그것을 하나의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우건설 역시 올해 수행역량의 고도화, 마케팅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 등 '경영 인프라의 혁신'에 몰두하고 있다. 기업의 체질 개선과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톱 20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의 '작은 혁신'이 뒷받침해야 한다. 혁신에 열려 있는 조직문화, 개개인의 일하는 자세, 업무 방식의 변화 등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고, 그 변화가 모이고 모여야 진정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대우건설인> 7 + 8월호에서는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혁신, 그 나비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전지적 혁:신시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선이고,
어느 곳까지 도달해야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제조업에서 IT업으로 기업의 체질을
바꿔버린 혁신부터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을 통한 혁신까지,
혁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글. 강미선(콘텐츠 기획자)

도전:력

아마존 :
후회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상점이라 불렸던 아마존은
오늘날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다.
이커머스, 클라우드, 헬스케어, 패션, 제조, 자율주행,
로봇, 머신러닝 등 세상의 모든 산업과 기술을 연결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다. 알다시피 아마존의 첫 시작은
온라인 서점이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나고, 아마존은
'에브리싱 스토어'로 성장했다. 언론(워싱턴포스트),
대형마트(홀마트), 제약(필팩) 등 다양한 영역을 인수한
데 이어 '아마존고'라는 오프라인 매장도 열었다.
베이조스가 운영하는 우주선 회사 블루오리진은
내년부터 우주비행 티켓을 판매한다. 그리고
이 모든 연결의 중심에는 후회할 시간을 최소화한
프레임워크가 자리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80세가 되어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후회할
것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파생됐다.

실패:력

사우스웨스트 항공 :
개척과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현장 책임자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신입이라도 임원이
담당할 법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처리한다.
이 회사 직원인 밥 몽고메리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신입 무렵, 자신의 책임하에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계획한 신공항 건설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계약은 결과적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40만 달러나 되는 손실을 끼쳤다. 회사의 결정은
놀랍다. 몽고메리를 중대한 실패에서 교훈을 배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승진을 시켰다. 이와 같은 기업
문화와 인사 시스템 덕분에 직원들은 '현상 유지',
'손실 회피'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 직원에게 리더십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시스템과
현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높이 평가하는 기업 문화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원천으로
꼽힌다.

오뚝이:력

대우건설 :
땀 흘려 일군 기업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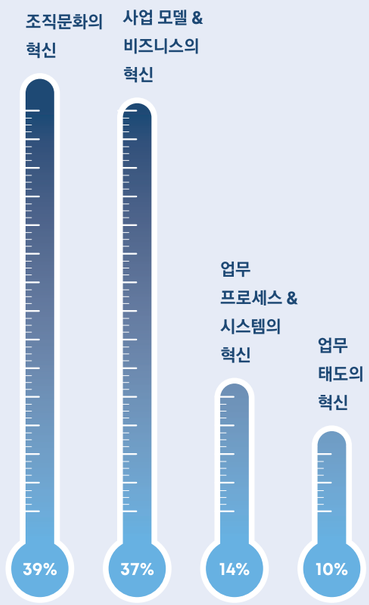
거가대로는 대우건설에게 훈장과도 같다.
세계 최장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닷속 도로, 세계에서 가장 긴 콘크리트 구조물 등
거가대로는 최초, 최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초유의 기록보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거가대로가 착공된 연도다. 거가대로는 2004년에
건설됐다. 착공되기 2년 전에야 워크아웃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2003년 푸르지오 브랜드를 론칭,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2년 만에 대로가 완성됐다.
이후 알제리, 파푸아뉴기니, 모로코 등 해외
건설의 판로를 개척해가며 국내 최단기간 해외수주
500억불을 달성했다.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거나 때를 내다본 덕분에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은 많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풍파에 시달리던 회사를 보란 듯이 우뚝 세웠고,
위기가 올 때마다 오뚝이처럼 일어서 운명과 맞섰다.
대우건설이 지닌 저력과 성장 비결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힘일 것이다.

대우건설인 토크쇼 안녕하세요

수많은 개인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숙명이다.
문제는 주변 환경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데 있다. 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그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노를 저어야 하는 법.
한 배에 올라탄 우리는 과연 '혁신'과 '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우건설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 결과를 통해 혁신에 대한
우리의 온도를 알아본다.

Q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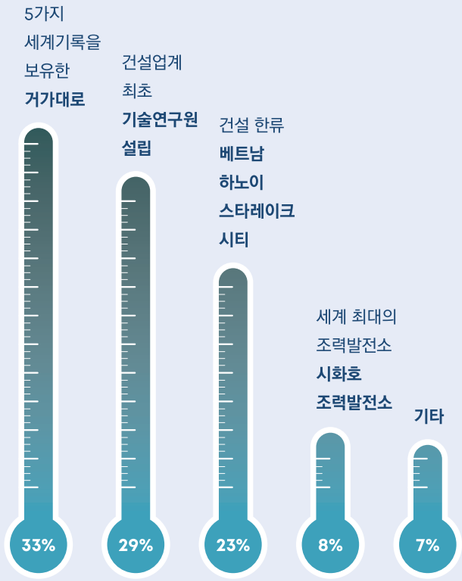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혁신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혁신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조직문화'와 '사업 모델 및 비즈니스'의 혁신이라고 답했다. 타 구직사이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조직문화 때문에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0%가 그렇다고 답한 것. 사업 모델 및 비즈니스는 기업의 수익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이 두 가지는 직원들의 이탈과 기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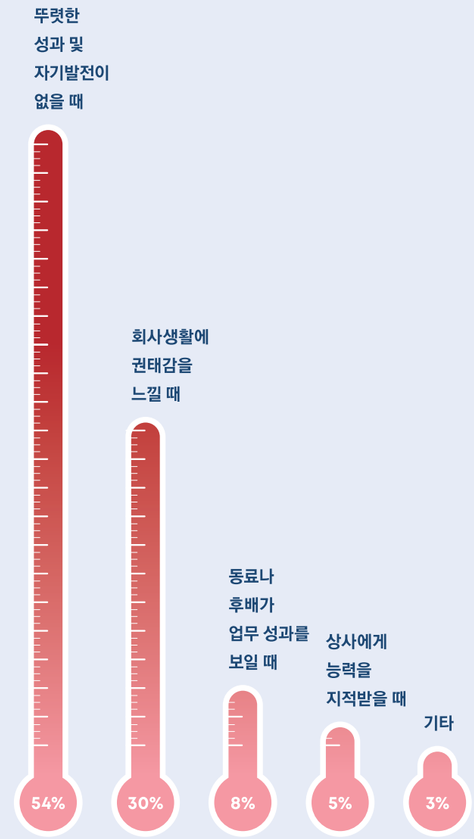
대우건설이 이뤄낸 혁신의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우건설인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혁신 1위는 5가지 세계기록을 보유한 '거가대로'였다.
경남 거제에서 부산을 잇는 이 도로는 통행 시간을 기존 130분에서 50분으로, 통행 거리를 140km에서 60km로 줄여냈다. 파도와 바람 조류가 심하고 매우 약한 해저기반 위에 지어져 그 당시에도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건설사례 중 하나다.
기타 의견에는 '세계 최장길이의 파키스탄 고속도로', '푸르지오 리뉴얼'이 있었다.

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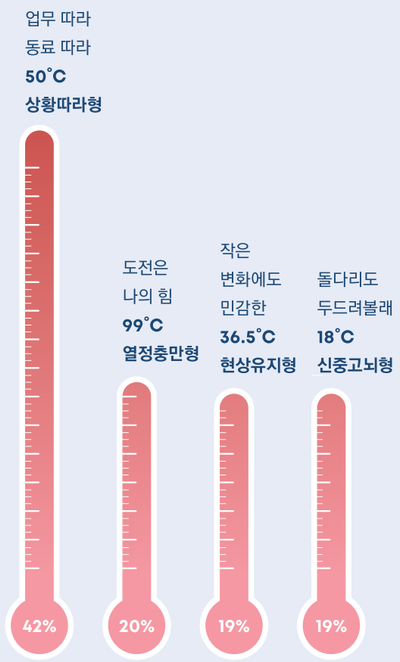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업무 방식이나 태도에 변화(혁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렇다면 직원들이 변화해야겠다는 경각심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응답자의 절반이 '뚜렷한 성과나 자기발전이 없을 때'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은 답변은 '회사생활에 권태감을 느낄 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자극보다는 '스스로 위기감을 느낄 때' 변화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조직 전체의 발전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감정 소모적인 업무갈등이 벌어질 때'가 있었다.

Q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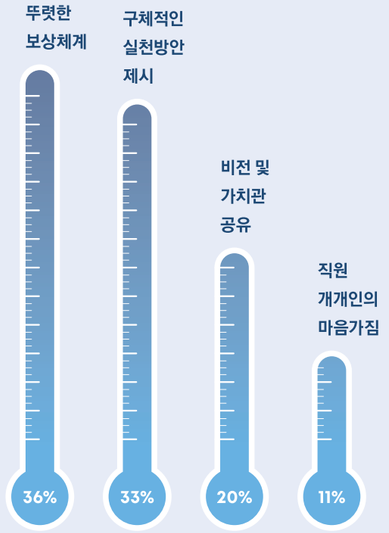
스스로 평가해보는
나의 업무 혁신 온도는?



자가평가도 이뤄졌다. 응답자의 40%가 '나의 업무 혁신 온도는 업무에 따라, 동료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즉, 변화하려는 욕구가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적절한 주변 상황과 분위기, 동료의 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Q5

혁신이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결과(성과)를 낳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혁신이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뚜렷한 보상체계'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가 차례로 1, 2위를 기록했다. '비전 및 가치관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Q6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을 때
가장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동료의 태도는?

"실패하면 책임질 수 있어?"
안전제일형
30%

"내가 해봐서 아는데"
척척박사형
30%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맥커터형
24%

"지금하고 있는 업무나 잘해"
꽈배기형
15%

앞선 설문 결과처럼 동료의 반응은 변화의 정도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안전제일형'과 과거의 경험을 내세워 시도를 막는 '척척박사형'이 변화를 가로막는 동료유형 1, 2위를 기록했다. 새로운 도전에 냉소적인 '맥커터형'과 '꽈배기형'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모든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무관심형'도 도전하려는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Q7

변화를 자극하는 직장 동료,
그중 가장 귀감이 되는 유형은?

긍정과 격려로 무장한
빨강머리앤형
37%

뭐든지 척척! 야무진
헤르미온느형
24%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는 **문익점형**
21%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는
에디슨형
18%

변화에 주춤거리게 만드는 동료가 있다면, 시도와 도전을 자극하는 동료유형도 있다. 그 1위는 바로 긍정과 격려로 무장한 '빨강머리앤형'이다. 뭐든지 척척 해내는 '헤르미온느형'과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는 '문익점형',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도전하는 '에디슨형'도 물론 좋은 동료지만, 오늘만은 빨강머리앤처럼 서로에게 "잘했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지원군이 되어보는 것도 좋겠다.

혁신, 그것이 알고싶다

빅데이터에서 '혁신'을 검색하면 '구호'라는 단어가 연관어로 뜬다. 2개 단어의 연관성을 알아봤더니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빈번히 오용되어 사용되면서, 실제 지닌 가치가 퇴색되어버린 혁신이란 단어를 새롭게 정의해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글. 강미선(콘텐츠 기획자)

그런데 말입니다. 혁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토데스크의 CEO인 칼 배스는 테드엑스 강연에서 혁신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혁신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새롭고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가는 과정이다."
혁신은 사물이나 과업, 기술이 아닌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개념과 과정 그리고 잠재적 결과까지 고려한 방법인 것이다. 사실 혁신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안에서 더 쉽게 이뤄진다. 혁신에는 극적인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조직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각'일지도 모른다. 즉,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드디어 혁신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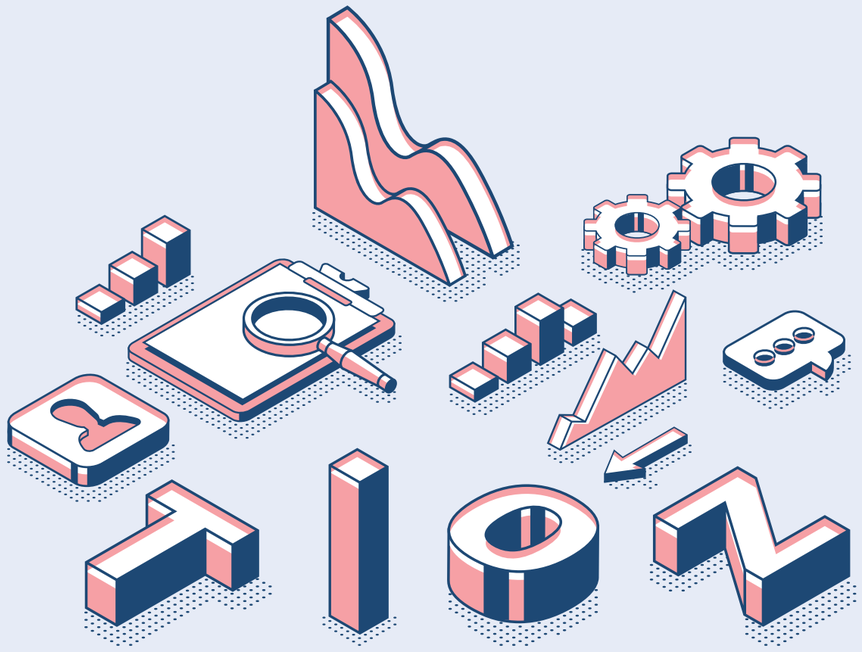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가 극심한 초경쟁 사회로 진입한 이래로 수많은 기업이 신사업팀, 혁신TFT을 신설한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조직, 시스템, 공정, 인재 배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혁신 구호가 울려 퍼진다.
그중 90퍼센트는 실패한다. 왜 그럴까?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 회사 '밀크셰이크'의 예를 보자. 이 회사는 밀크셰이크 매출을 늘리고 싶었다. IT기업처럼 밀크셰이크를 개인별 맞춤 큐레이션하는 방향도 생각해보고, 젊은 세대 고객들을 영입하기 위해 SNS 마케팅도 고려해봤을 것이다. 제아무리 최신 기술이 도입된 혁신이라 할지라도 제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임을 깨닫고, 이 패스트푸드 회사는 고객들의 구매 양상을 살펴 분석해봤다. 놀랍게도 고객들이 아침에 급히 밀크셰이크를 사서 차로 가져가는 경우가 40퍼센트에 달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직접 밀크셰이크를 사는 이유를 인터뷰했더니 통근길에 지루함을 덜거나, 점심 때까지 배고픔을 달래거나, 한 손을 이용해 깔끔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실들은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에 영감을 주었다.
예를 들어 밀크셰이크 가게를 카운터 전면으로 옮기고 충전식 구매 카드를 판매해 고객들이 느린 드라이브스루 창구를 피하고 직접 밀크셰이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혁신이 꼭 대대적인 개선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경험하지 않고 혁신한다? 의문점이 드는 대목입니다

조직행동 전문가인 프랑크 바렛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제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제작한 '혁신을 위해서는 판에 박힌 일상을 허물어라'라는 영상에서 바렛은 한 항공사가 고객 서비스 불만을 처리하는 사례를 공유했다. 영상 내용은 이러하다.
한 항공사의 간부들이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줄 방법에 집중하려고 간부 연수를 실시했다. 첫날, 참가자들이 회의하는 동안 항공사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간부들이 묵는 호텔 방의 침대를 비행기 의자로 교체했다. 다음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간부들은 비행기 의자에서 밤을 지낸 후, 고객의 편안함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급진적인 혁신안'들을 내놓았다.
만약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그들의 일상적인 수면 방식을 허물고 고객의 불편함을 경험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처럼 신상품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실사용자, 즉 고객의 삶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은 제품 구상에서부터 디자인, 마케팅, 광고에까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오랜 잠복 끝에 혁신을 잡았습니다

작가이자 인간행동 연구자인 톰 래스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매일 자신의 강점에 집중할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할 확률이 6배 높고,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답할 확률이 3배가 넘는다."
래스는 실제 연구를 통해 리더가 막연하게 조직원들이 해당 분야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보다는, 조직원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들이 일에 훨씬 더 몰두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조직원을 못 본 척하고 개입 없이 그냥 놓아두는 리더가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리더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결과는 이것이다. 조직원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리더와 일할 경우, 조직원이 업무에서 무능력함을 보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뛰어난 리더는 조직원의 강점을 살림으로써 재능을 발휘하도록 만든다.
동시에 그들은 신뢰와 자율성 사이에 균형을 맞춘다.



questions for innovation

'프로 혁신러' 크리스텐슨이 말하는 혁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질문

파괴적 혁신 이론의 주창자인 클레이트 크리스텐슨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넉넉한 재원과 유능한 인재들을 보유했음에도 신제품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신사업이 직면할 난관이 아니라 과거의 난관에 맞게 설계된 조직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가 제안한 혁신을 실행하기에 앞서 스스로 던지면 좋은 3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1

혁신을 뒷받침할 올바른 자원을 지녔는가?
기존 사업을 뒷받침하는 인력, 기술, 제품 설계, 브랜드, 고객 관리 및 공급업체 관리 같은 자원은 신사업에 필요한 자원과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2

혁신에 필요한 올바른 절차를 지녔는가?
기존 사업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 규칙, 조율 패턴 같은 절차는 신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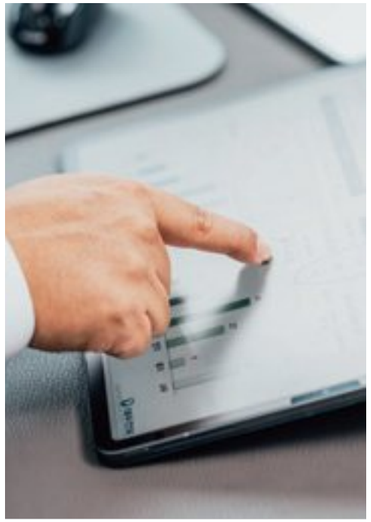
혁신에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녔는가?
신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라. 예를 들어 이윤이 재무 기준에 못 미칠 만큼 낮으면 용인할 수 있는가?

불광불급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미친듯이
몰두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

조달본부
김성환 본부장

본사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또 다른 현장으로.
김성환 본부장은 이곳저곳에서 다져온 잔뼈 굵은 손으로
조달본부의 업무 시스템을 바꿔왔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혜안을 가진 리더이자
후배들에게 넓은 세상으로의 도전을 독려하는 선배다.



"매뉴얼화를 통해
일의 능률을 높이고
신뢰받는 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업무 시스템의 혁신이 뒤바꾼 사무실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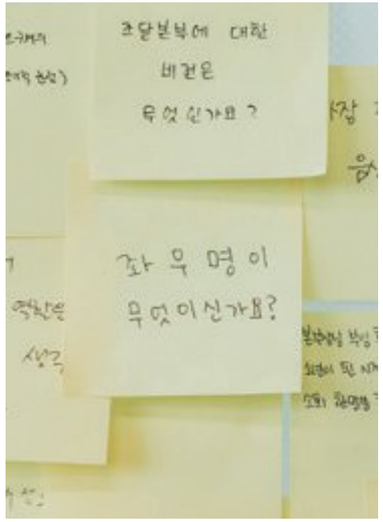
김성환 본부장의 집무실에선 서류 더미와 결재판을 도통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조달본부 직원들의 책상 위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약 8년의 조달업무 경험을 거쳐 조달본부 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1년 4개월. 종이 없는 사무실을 목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정착시키며 이뤄낸 변화다. 보고 및 결재를 위한 서류는 모두 메일로 전송하고, 아이패드에 저장하여 처리한다. 이는 일의 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본부의 전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데 큰 몫을 했다.

"새로 부임하는 직원이 매뉴얼만 보고도 바로 일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해요. 이후에도 회사 방침을 반영하여 수시로 보완하고요. 업무와 진행 방법이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연령이 다양한 직원들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 작년 한 해 동안 직원 개인에게 직접 결재 보고를 받으며 팀원들의 담당 업무와 업무 성향을 파악한 것이다. 그가 문서 전자화와 매뉴얼 구축, 직원들과의 교감을 위해 애쓴 가장 큰 이유는 '신뢰받는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이는 김 본부장이 세운 2019년 조달본부의 목표이기도 하다. 외주, 구매, 건설기계, 물류 등 외부 협력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조달본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협력사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신념이다.

조달본부 내 종이 사용률을 혁신적으로 줄여낸 그에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종이 더미가 도착했다. 조달본부 후배들이 김 본부장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적은 메모지다. 실무에 관한 진지한 고민부터 효과적으로 쉬는 방법, 직원들에 대한 애정도를 묻는 애교 섞인 물음까지. 여러 질문을 찬찬히 훑어보며 골몰하던 김 본부장이 메모지 몇 개를 떼어냈다. 김성환 본부장은 1986년에 입사해 33년간 총 13개의 프로젝트를 담당해왔다. 한 업무당 평균 2.5년을 일했으니 비슷한 연차의 다른 이들에 비해 비교적 여러 경험을 한 셈이다. 이동이 잦은 만큼 적응이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저 "꾸준히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준 회사에 감사한다"고 말한다. 덕분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이 그를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경기 기흥도로 건설현장이에요. 차장으로 일할 때였는데, 제가 현장에서 과연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발주처 직원들이 내기를 했다더군요. 연차 낮은 직원이 소장으로 왔으니 금방 본사로 돌아갈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다'는 기쁨에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열정을 다했어요. 묵묵히 노력하다 보니 6개월이 지날 때쯤에야 발주처 감독이 저를 인정해주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소중한 일상이 모여 만드는 내면의 단단함

그는 '현장 경험이야말로 자신감을 쌓고 업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힘주어 말한다. 김 본부장 역시 도로, 정수,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건설업을 보는 눈을 키웠고, 불철주야 여러 분야를 공부하며 지식은 물론 성취감을 쌓았던 것이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단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얻은 것이다.

"저는 후배들에게 항상 3년 이내에 무조건 팀을 옮기라고 조언해요. 자리를 옮기면 주변 사람도, 시스템도 바뀌니 당시에는 힘들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깨 너머로 얻는 간접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직접 경험하며 공부하고 부딪혀봐야 나에게 맞는 노하우가 생기고, 그 노하우만이 자신의 재산이 됩니다."

김성환 본부장이 여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고민만큼이나 많은 후배들의 관심거리일 것이다. 그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가족과의 대화를 꼽았다. 가능한 일찍 퇴근해 부인과 집 주변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즐긴 뒤 두 자녀를 데리러 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다.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이 따로 나눌 수 있는 대화와 그 시간이 주는 유대감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다. 또 다른 취미활동도 있다. 바로 등산이다. 3년 전부터 시작한 주말 등산이 어느덧 80회를 넘겼다. 직접 몸을 움직이며 흘리는 땀의 귀중함을 느끼고 있다. 100대 명산 중 수도권 15대 명산을 금년 초에 완주하고, 강원도와 충청도로 눈을 돌렸다. 평일 쌓아둔 몸의 피로를 자연과 함께 풀어내며 건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김 본부장은 신사옥 이주 후 발견한 맛집도 공유했다. 유명한 평양냉면 맛집인 '우래옥' 근처에서 발견한 '문화옥'이다. 67년 전통의 설렁탕집으로, 국물을 들이켜자 마자 '제대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을 자주 찾게 된다. 반가운 여러 직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구내식당만의 매력이다.

김 본부장은 올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매뉴얼을 바탕으로 본부 직원 레벨업 교육 및 우수 협력회사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푸르지오밸리와 남한산성 성곽길에서 보낸 직원들과의 시간 이후 직원 개인과 본부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자신의 소신을 믿고 따라와 주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본부의 발전을 목표로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김성환 본부장이다.

> "직접 경험하며 공부하고 부딪혀봐야 나에게 맞는 노하우가 생기고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 됩니다."

write now!

百聞 不如一感
百聞 不如一感

백 문 불 여 일 감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못하다."
33년간 총 13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경험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아온 김성환 본부장은 '불광불급(不狂不及)' 그리고 '백문 불여일감(百問 不如一感)'의 정신을 직원들과 함께 새기고 싶다. 직접 보고, 배우고, 느끼고, 행하며 쌓아온 그의 지혜를 본받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이 말을 되뇌어보자.

about work & life balance

김성환 본부장이 촬영한 제천 월악산 청풍호

설악산 대청봉 등반 모습

김성환 본부장의 워라밸

'한국의 100대 명산' 투어에 30회가량 참석했을 정도로 자타공인 등산 마니아인 김 본부장. 등산을 시작하는 이에게 추천하는 산은 홍성 용봉산이다. 약 400m로 비교적 낮지만, '충남의 금강산'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 제천 월악산은 산을 조금 더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계단이 많아 힘들기는 하지만 산 위에서 바라본 청풍호의 모습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은 여전히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자, '인생사진'이에요."

현장에서 찾은 지혜

푸르지오가 바꾼
생활의 변화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도시와 전원 사이, 그 경계에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가 있다.

32 Month
공사 기간
2016. 10 — 2019. 6

249.47 %
용적률

516,696 m²
연면적

141,289 m²
대지 면적

아파트는 도시의 얼굴이다

프랑스의 건축 거장 르 코르뷔지에가 아파트 설계를 창시한 지 70년이 지났다. 오늘날 아파트가 도시의 얼굴이 되기까지, 한국의 아파트 문화사에서 외형과 건축 기법 등 여러 측면에서 주옥 같은 아파트들이 이름을 남겼다. 최근 안산 초지동에 건설된 아파트도 국내 건설 역사에 새로운 이력을 남긴 사례다. 3개 단지 통합 재건축을 최초로 실현한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로, 2019 한경주거문화대상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는 59만4,000m² 대지 위에 4,030가구를 건설했다. 초지1단지, 초지상단지, 원곡3단지까지 3개 재건축조합을 통합한 대단지로 3개 단지를 통합한 재건축은 우리나라 건설사에 없었던 첫 시도였다. 대단지 통합 개발은 안산에서 푸르지오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시도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에코단지를 지휘한 박병주 소장이 말했다. "1999년 안산 고잔 1차 푸르지오가 첫 신호탄일 거예요. 지금까지 총 1만8,720가구를 공급했지요. 올해 말이면 우리 회사가 안산에 공급한 푸르지오가 2만 가구를 넘어서게 되죠. 안산 주민들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안산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 데는 실제 푸르지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이어지며 브랜드 평판이 높아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푸르지오의 새로운 로고는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자연의
형상이 담겨있다.

이름 걸고 지은 에코, 메트로, 파크단지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는 3개 단지로 구성된 아파트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메트로단지는 4호선 초지역과 가까운 역세권, 파크단지는 60헥타르 규모의 녹지인 화랑유원지 등 두 개의 공원과 이어진 숲세권, 에코단지는 두 단지 사이에 있어 여러 장점을 취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 효율을 극대화한 다(多)세권이다. 푸르지오에서 동, 서 방향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인접해 학세권 인프라도 갖췄다. 각각의 아파트 단지에 성격을 부여하게 된 계기는 3개 조합이 합작하게 되면서 우선순위를 연상케 하는 숫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에코단지의 박병주 소장이 설명을 보태어 이해를 도왔다. "에코단지의 장점을 파크단지와 메트로단지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숫자로 단지를 구분할 때와 달리 에코단지라고 이름 붙이면서 장점을 더 극대화하려고 엘리베이터 전력 회생이나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는 식으로 에너지절약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죠." 하지만 박 소장이 준공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따로 있었다. '별탈 없는 하루'다. 담백한 말 속에는 큰 뜻이 숨겨져 있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별탈 없는 날이 없어요. 공사 중에 내장업체, 기계설비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기가 지연된 적이 있어요. 본사와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잘 마무리됐죠. 입주를 앞둔 시점에는 차후에 하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는 차원에서 '내 집 방문의 날' 행사를 열어 입주자들을 불렀고, 입주자들이 지적한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보완해가면서 완벽에 가깝게 시공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렇게 수면 아래에서 힘겹게 발을 굴려야 수면 위에서는 별탈 없어 보이는 법이죠." 그런가 하면 에코단지 건축팀 정성훈 과장과 벽돌을 쌓는 기술을 지닌 조적공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때는 한여름, 현장에서 일하던 나이 지긋한 조적공에게 클리어톡을 알려주면서 시작됐다. 클리어톡은 현장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메신저로, 근로자가 클리어톡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소장, 건설팀과 안전팀 수장 모두에게 동시에 보내진다. 당시 건설팀을 이끈 정성훈 과장이 후일담을 들려줬다. "클리어톡의 생명은 빠른 회신과 처리라서, 그분이 늦은 시간에도 문자를 보내면 업무가 끝나고 곧장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후 수시로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지금껏 조적공으로 일하면서 여기처럼 제대로 일하는 현장은 본 적 없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마음이 뿌듯해졌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별탈 없는 날이 없어요. 수면 아래에서 힘겹게 발을 굴려야 수면 위에서는 별탈 없어 보이는 법이죠."
에코단지
박병주 소장

team metro

“골조공사 중 태풍이 몰아 쳐서 전 직원이 부랴부랴 갱폼에 올라가 혹시 모를 사고를 막으려고 비 맞아가며 점검하던 모습은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메트로단지
장경각 소장

행복한 일터의 조건을 갖추다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는 20평대 소형 평형대가 대부분이다. 단지 인근에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가 있어 1-2인 가구 실거주자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지 안팎에 문화, 편의시설을 채워 넣었다. 단지 내에 피트니스 클럽과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마련했고 독서실, 푸른도서관, 동호인실 등 소통과 교류의 장도 만들었다.

메트로단지 현장을 지휘한 장경각 소장은 “톱니바퀴 돌 듯 현장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직까지 뇌리에 선명한 장면도 있다. 비에 젖은 직원들의 모습이다. “골조공사 중에 태풍이 몰아 쳐서 전 직원이 부랴부랴 갱폼에 올라가 갱폼 수직망에 있던 바람구멍을 보수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혹시 모를 사고를 막으려고 비 맞아가며 갱폼을 점검하던 직원들의 모습은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공사 총괄을 맡은 채용규 차장도 외부 담당자들과의 일화를 전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가설 계획 시점에 현장 출입게이트를 당초 2개에서 3개로 하나 더 늘리기 위해 단원구청과 경찰서에 찾아가 담당자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가며 승인을 받았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그때 포기했다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그날그날 풀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단지 내 공원에서 족구 한 판을 하면서 팀워크를 다졌고, 일이 끝나면 삼삼오오 모여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거나 조촐한 회식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현장엔 활기가 넘쳤어요. 현장 근로자분들이 ‘여기만 오면 힘이 난다’ ‘기분 좋게 일하고 간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이런 분위기 덕분이었던 것 같네요.”

에코단지의 시공 현장 사무실에 ‘내일도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현장’이라 적힌 글귀가 액자에 걸려 있었다. 메트로단지 사무실에도 화합을 도모하는 글귀가, 파크단지에도 여지없이 결속력을 다지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파크단지의 이호석 소장은 현장에서 조직력,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매달 하루씩 짬을 내서 직원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저녁 나절에 시원한 바람으로 피로를 씻어내고, 산에 오르며 직원들끼리 한마음 한뜻으로 한 데 뭉치는 시간을 보내라는 차원이었죠.” 그는 시공 현장이야말로 직원들의 조직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사팀, 품질팀, 공무팀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척하면 척 하듯이 의견을 주고받아야만 현장이 매끄럽게 굴러가죠. 자동차 부품과 같아서 어느 하나가 작동을 안 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장의 직원들만큼 조직력이 우수한 친구들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단지 내 정원은 외부의 환경을 끌어안고 있다. 넓은 중앙광장에는 수령이 10년 이상인 우람한 소나무와 실개천을 본 딴 분수대 등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완벽에 가까운 완성형 아파트를 만든 현장의 직원들과 수많은 근로자들이 안산이라는 도시에 매력적인 표정을 만들어주었다.

“공사팀, 품질팀, 공무팀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장의 직원들만큼 조직력이 우수한 친구들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파크단지
이호석 소장

team park

지진을 견디고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

Seismic Damper System

인방보형 제진댐퍼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경상북도 경주 일대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다.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잠시 뒤인 8시 32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더 큰 진동이 경주를
강타했다. 5.8 규모로, 지진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큰 지진이었다.
경주와 350km 떨어진 서울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지진 관련
안전설비에 대한 관심도도 올랐다.
대우건설은 '인방보형 제진댐퍼'를 통해
안전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글.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경주와 포항을 뒤흔든 두 번의 진동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 여기던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피해 금액은 경주시 추정 약 107억 원. 한옥 기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래된 건물에 금이 가고 천장이 내려앉기도 했다. 2016년 한해 동안 총 231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이전까지의 지진 발생률이 연평균 47회이니 약 5배에 해당하는 빈도다. 지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주 지진 후 대비를 위한 여러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던 중,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보다 규모가 작았음에도 경주보다 훨씬 큰 피해를 일으켰다. 포항시 집계에 따르면 피해액은 약 672억 원. 경주 지진의 6배에 달한다. 이 지진으로 아파트가 주저앉았고 필로티 구조의 기둥과 학교 건물 기둥이 무너졌다. 대학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고 고층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진동 규모가 작아도 더 큰 피해를 입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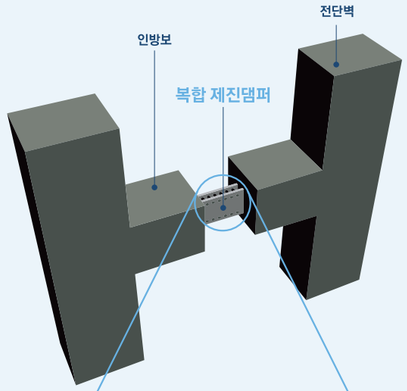
규모가 작은 포항 지진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 있다. 지진이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단단한 암반이 오랫동안 압력을 받다 깨졌을 때 그 에너지가 진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이 진동은 진앙에서 수백 km까지 전달되는데, 해당 지역의 지반 특성에 따라 진동 유형이 달라진다.
진동수가 높은 고주파 진동일지라도 지반이 점토나 모래처럼 연약할 경우 본 지진파의 진동수가 감소한다. 물렁물렁한 물체를 아래에서 잡아 좌우로 빨리 흔들어도 물체 위에서는 그보다 천천히 출렁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제는 이 저주파 대역과 고층 건물의 고유 진동수 대역이 유사하다는 데 있다. 땅에 있는 물체가 흔들릴 때는 진동의 크기뿐만 아니라 진동수가 중요한데, 땅에서 발생한 진동수와 특정 건물의 진동수가 유사하면 공진(진동계의 진폭이 가장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건물을 넘어뜨리고 다리를 부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비교적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 기반의 경주는 지진파 진동수가 높아 낮은 건물이 붕괴되는 데 그쳤지만, 퇴적층으로 지층이 무른 포항은 아파트나 학교 등 중층 및 고층 건물에 피해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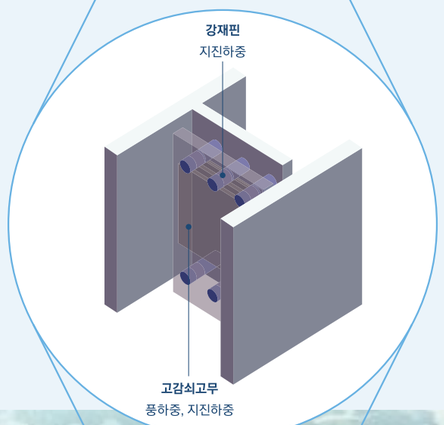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얼마나 안전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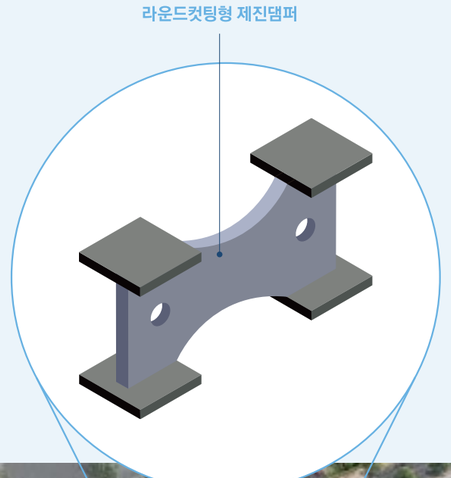
경주와 포항 사례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꿨다. 많은 이들이 지진의 위험성은 물론 건물의 안전성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동시에 우리나라 건물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 대부분이 안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건물이 어느 정도 손상되는 것을 허용하는 설계 방법이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 5.4와 5.8 지진은 분명 작지 않은 규모였음에도,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들만은 피해가 적었다. 이를 통해 지진이 불시에 일어나더라도 내진설계가 제대로 적용된다면 재해에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아파트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6층 이상의 아파트에 내진설계를 적용했다. 2005년 이후엔 거의 모든 아파트로 그 범위를 넓혔다. 지진하중의 재현주기도 500년에서 2400년으로 변경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진에 꾸준히 대비하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 여기던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진으로 한옥 기와가 떨어지고 필로티 구조의 기둥이 파괴되었으며 고층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지진저항에 최적화된 형태를 갖춘
라운드컷팅형 제진댐퍼 및 바람에 의한 하중까지 저항할 수 있는
복합 제진댐퍼 등을 개발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







왼쪽.
수원 인계 푸르지오
복합 제진댐퍼 93개

오른쪽.
과천 푸르지오 써밋
라운드컷팅형 제진댐퍼 1,57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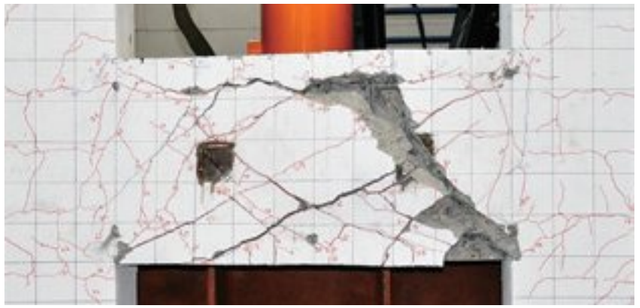
아파트 내진설계, 지진을 견디다

내진설계는 벽면에 각종 보강 설비를 갖추어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설계의 주요 구조 부재는 지진에
저항하고, 나머지 부재는 탄성영역을 넘어 형태가 아예
변형되는 소성영역까지 도달한다. 따라서 지진의 피해가 크면
건물을 재사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일본처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이를 위해 대개 '제진설계'를 적용한다.
제진설계란 지진에 잘 저항하는 특수 부재 즉, 제진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제진 장치가 주요 구조 부재의 손상을
막아주므로, 제진 장치만 보수하거나 교체하면 된다.
국내 아파트 건물은 대부분 벽식구조물(기둥, 들보 등의 골조 대신
벽이나 마루로 구성하는 건축구조)로서, 각 객실과 벽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결보로 구성된다. 지진 발생 시 먼저
변형되거나 무너지는 것은 벽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연결보다.
포항 지진의 대표 피해사례 중 하나인 고층 아파트 창문의
연결보에 X자 균열이 발생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연결보가 손상을 입으면 연결된 두 벽의 '커플링 효과'가
사라진다. 이는 연결보가 두 벽을 커다란 하나의 벽체로 이어
지진하중을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때 연결보에 제진
장치를 설치하면 내진 성능이 향상된다.
제진 장치가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커플링 효과를
유지함으로써 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우건설, 지진에 대비하다

대우건설은 여러 형태의 인방보형 제진댐퍼를 개발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 지진하중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한 하중까지
저항할 수 있는 복합 제진댐퍼(HY-CALM)와 지진 저항에
최적화된 형태를 갖춘 라운드컷팅형 제진댐퍼를 개발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제진 장치(하중 변동을 단계별 감쇠시키는 복합 제진댐퍼,
스카이 브릿지용 제진댐퍼, 아웃리거 댐퍼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수원 인계 푸르지오와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의 큰 건물에는
복합 제진댐퍼가 적용되었으며 과천 푸르지오 써밋,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에는
지진에 최적화된 라운드컷팅형 제진댐퍼가 적용되었다.
향후에도 대우건설기술연구원은 지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계속적인 기술개발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것이다.

위.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댐퍼 미적용 실험체는
지진과 동일한 실험 상황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아래.
HY-CALM 댐퍼적용 실험체는
동일한 실험에서 댐퍼의
에너지 흡수에 따라 구조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No. 2
2019 7+8

태양을 피하는 방법

여름 무더위는 누구에게나 가혹하지만, 뙤약볕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현장 직원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투의 대상이다.
그러나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이 여름도 무사히 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중앙연구소 현장의 안전관리자
임동윤 대리가 무더위를 맞서는 건설 현장 폭염 대비책을 소개한다.

임동윤 대리가 알려주는
건설 현장 폭염 대비책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
풀 동영상을 확인해보세요!

1 더위야 물렀거라— 현장 대비책

수분 보충, 또 보충

탈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조건이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자주 물을 마시도록 하자. 다만 탄산이나 카페인 음료는 삼갈 것.
회사는 현장 곳곳에 급수 시설과 제빙기를 설치해 직원들의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돕고 있다.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

폭염에는 그늘진 장소에서 수시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불볕더위가 맹렬한 날에는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하자.
회사는 현장 직원들이 뙤약볕을 피해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그늘막 같은 휴식 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폭염에는 탄력 근무

기록적인 폭염에는 탄력 근무제도 묘책이다. 이를테면 해가 없는 오전에 근무하거나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전 조기 출근제, 오후 휴식 시간 추가 확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시로 체온 체크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근로자의 체온을 체크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힘내라 힘! 간식 타임

무더위에는 몸도 마음도 축 처지기 마련이다. 회사는 기운을 북돋고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이스크림이나 수박 등 여름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잠시나마 달콤하고 시원한 디저트를 먹으며 무더위를 잊어보자.

2 더위야 덤벼라— 현장 꿀템

여름용 안전모

여름 모자와 겨울 모자가 따로 있듯, 안전모도 여름용이 있다. 먼저 여름용 안전모는 모자에 구멍이 뚫려 있어 한결 시원하다. 또한 내피에 장착된 타올이 흐르는 땀을 흡수하고, 메시 소재가 통풍을 돕는다. 여기에 아이스팩까지 넣으면 더위가 쑥 물러간다.

쿨 조끼

조끼 역시 여름용이 따로 있다.
소재가 메시로 되어 있어 통풍이 잘되고, 몸판 포켓에 아이스팩을 넣을 수 있어 끓어오르는 체온을 낮춰준다.
쿨 티 위에 쿨 조끼까지 덧입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자외선 차단 버프

건설 현장 내 발생하는 먼지 흡입을 차단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버프 역시 여름용을 찾아보자. 여름용 버프는 냉감 소재에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여름철 건설 현장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힌다.

쿨 토시, 쿨 스카프

가장 고전적인 건설 현장 피서 아이템은 쿨 토시다.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뿐 아니라 냉감 역할을 해준다.
최근에는 물에 적셔 목에 두르는 쿨 스카프도 '잇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를 빼먹는 이유 중 하나는 손으로 도포하는 게 영 귀찮기 때문.
그렇다면 액체형 자외선 차단제 대신, 그저 쓱쓱 바르는 스틱형이나 휘휘 뿌리면 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 피부를 보호해보자.

letter from QATAR

이 도로를 너와 함께 달리고 싶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떨어진 거리만큼 마음은 더욱더 깊어질 뿐이다.
카타르고속도로PJ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김대영 과장. 후일, 이 도로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하는 날이 오길 기다리며
그가 마음으로 쓴 편지가 도착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정미에게

벌써 우리가 떨어져 지낸 지 햇수로 5년째네. 카타르에서 지낸 시간을 돌이켜보면 항상 2015년 말이 가장 먼저 떠올라. 카타르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가 열이 심해 입원했었잖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 가뜩이나 현장부임 초기라 적응도 안 되고, 공정 만회 업무로 현장이 24시간 바쁘게 돌아갈 때라 마음을 온전히 쓰지 못했던 게 계속 남아 있어. 그래도 그때 부산으로 이사하길 잘한 거 같아. 한겨울이고 장거리 이사였지만 부모님 계시는 부산으로 이사한 후, 당신도 나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니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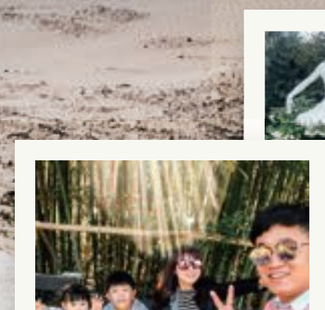
카타르에서 아빠가 무슨 일 하냐고 애들이 물어보면 항상 "다리 만들고 있어"라고 얘기했었지. 짧게나마 편지로 이곳 생활을 들려줄 수 있어 기쁘네.
카타르는 중동 부국 중에서도 최고 부자 나라야. 풍부한 석유 자원뿐만 아니라 천연가스(LNG) 수출량도 세계 1위지.
이슬람 국가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비해서도 많이 개방된 나라라 회식 때 술도 마시고 가끔 삼겹살도 먹고 있어. 여름에 5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를 빼고는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생활하기 좋은 나라인 거 같아.
현지인은 대부분 무슬림이야. 그래서 생활하는 데 여러 제한이 있지만 현지에 적응하려면 이 종교를 무조건 존중해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 여담으로, 여러 해 생활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아랍어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인샬라'야. '신의 뜻대로'라는 뜻으로, 현지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지. 처음에는 긍정의 의미로만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 이미 협의한 일정이나 방법을 어겼을 때 핑계로 이 말을 쓰기도 하더군. 여러 번 당해서 지금은 속지 않아. 그럴 때 나는 인샬라 말고 "Make it sure" 하라고 영어로 반박하지.

카타르고속도로PJ 현장은 카타르 수도 도하 남북 쪽으로 약 150km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야. 대우건설 구간은 도하 북쪽 42km 구간에서 트럭이 다니는 길을 따로 분리해 왕복 14차로 신설도로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현장이지.
국내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여느 해외 도로 현장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야. 설계 및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라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 구간을 모두 개통하고 잔여 부대공사 및 이관 서류 작업 진행 중이야. 프로젝트 계약서에 준공필증 후 400일 유지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곧 끝내고 당신한테 갈 수 있을 거 같아.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분명 보람도 있었어. 프랑스, 호주 등 여러 쟁쟁한 회사들이 진행하는 1, 2, 3공구는 아직 잔여 공사도 많이 남아있고 심지어 앞으로 2년 더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현장은 앞서 완료했다고 발주처에서 칭찬 일색이야. 현재까지도 준공필증은 4개 공구 중 대우건설만 받았지. 2014년부터 현장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땀으로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앞으로 카타르에서 대우건설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 다음에 당신과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카타르에 여행 와서 이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해보면 어떨까 해.
어서 빨리 우리 가족과 함께 도로를 달려보고 싶네.

말도 못 했던 건희가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고, 돌도 안 돼 기어 다니던 혜원이는 뛰어다닐 만큼 시간이 흘렀어. 주말부부도 모자라 이제 분기부부냐고 투덜대던 당신이 그 시간을 잘 헤쳐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고맙다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네.
건희야, 혜원아. 아빠가 많이 사랑해. 계속 엄마 많이 도와줘.
그리고 정미야. '여보'라고 부르면 왠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했었지. 평생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줄게. 못난 남편 만나 고생 많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쭉 사랑할게.

- 카타르에서 당신의 못난 남편이



가정용 재봉틀을 사려고
고민 중인 아내를 위해 재봉틀을
선물하고 싶다는
김대영 과장의 마음을
<대우건설인>이 대신 전했다.

SAUDI ARABIA t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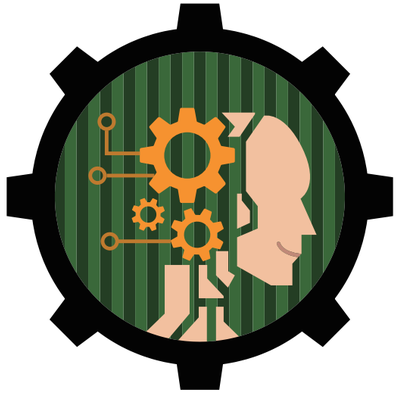
**아라비아반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나라,
혹은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TMI를 알아본다.
혹시 아는가, 알아두면 언젠가 쓸 데 있을지.**

35년 만의 상업영화, <블랙팬서>

작년 1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상업 영화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강경한 이슬람의 영향으로 1983년부터 상업영화 상영이 금지되어온 지 35년 만의 일이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마블 스튜디오의 <블랙팬서>.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온라인으로 판매한 620개 좌석이 15분 만에 매진됐다고. 관객들은 영화의 역사를 요약한 홍보 영상과 사우디 왕세자의 미국 방송 인터뷰, 여성모델이 차를 운전하는 코카콜라 광고를 함께 시청한 뒤 영화를 관람했다.

코스메틱 열풍, 그 중심에 선 향수

사우디는 중동 화장품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메틱 강국이다. 2015년 여성의 사회 진출 및 남성 그루밍족의 증가 덕인데, 특히 향수의 인기가 높다. 중동은 전 세계 향수의 25%가량을 소비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별한 날 향수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급 프리미엄 향수 시장도 점점 넓어지는 중이다. 다만 바이어에게 향수를 선물하고 싶다면 첫 만남보다는 친분을 쌓은 뒤 특별한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 사우디는 비즈니스 내 선물 문화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이다.



사우디에 이름 새긴 최초의 로봇 시민

지난해 10월,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AI 로봇이 사우디 시민권을 발급받았다. 홍콩의 로봇제조사가 개발한 이 AI 로봇은 실시간 대화는 물론 62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사우디 정부가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수여한 것은 사우디가 추진하는 미래형 도시 '네옴(NEOM)'의 홍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정보통신, 인공지능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위주로 국가 경제를 바꾸겠다는 사우디의 비전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사우디의 국민 껌, 한국인에겐 추억소환템?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껌 좀 씹었던' 한국인이라면 사우디에서 반가운 재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90년대에 자취를 감춘 스파우트가 사우디의 '국민 껌'이기 때문. 주사위 모양의 껌을 씹으면 과일시럽이 터져 나오는데, 이 상큼한 과즙이 사막기후로 입안이 건조한 중동인들의 취향에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서도 점유율 70%를 기록하며 껌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치냉장고만 있나, ○○○○ 냉장고도 있지

여러 중동국가의 주식이자, 간식인 대추야자. 산후조리는 물론 라마단 금식 후 첫 끼니에도 대추야자를 먹을 정도이니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전 생애주기 식품. 사우디에서는 '대추야자 냉장고'가 출시되기도 했다. 영하 25도에서 급속 냉각해 6개월간 그 맛을 일정하게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제품으로, 2004년 출시 1년 새 약 10만 대가 판매됐다. 특이한 점은 사우디가 아닌 외국에서 수입해온 상품이라는 것. 그곳은 바로 '1가구 1김치냉장고'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한 달 동안의 낙타 페스티벌

'킹 압둘아지즈 낙타 페스티벌'은 약 한 달 동안 사우디에서 열리는 행사다. 세계 최장신 및 최단신 낙타를 비롯해 약 3만 마리의 낙타가 참여하는데, 낙타유(油) 맛보기 체험행사, 낙타 미인대회 등이 열린다. 낙타 미인대회의 주요 심사 기준은 입술과 혹의 생김새, 작은 귀, 큰 코다. 작년 낙타 미인대회에선 12마리의 낙타가 코와 턱에 보톡스를 맞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행사의 상금이 자그마치 2,000만 리얄(약 56억 원)이기에 생긴 에피소드다.

DAEWOO E&C project

**대우건설의 저력을 다시 한번,
사우디 자잔 석유화학플랜트 건설공사**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예맨 국경의 홍해에 인접해 있는 자잔(Jazan) 지역. 이곳에 일 생산량 40만 배럴 규모의 정유소 및 터미널을 건설하는 1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중 12번인, 나프타 가공 및 벤젠 등 방향족 화합물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석유화학플랜트 건설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하고, 우리 회사와 일본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인 JGC가 전략적 합작을 통해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 중에서도 석유 매장량이 최고로 꼽히는 나라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엔 바람이 유독 강해 모래바람과 모래폭풍이 자주 불어 닥치는데, 현장작업 진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가설 사무실 및 숙소에 모래먼지가 가득 쌓이곤 한다. 우리 직원들은 이런 어려움을 딛고 올해 준공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대우건설의 저력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문화재를 넘어 세계인의 유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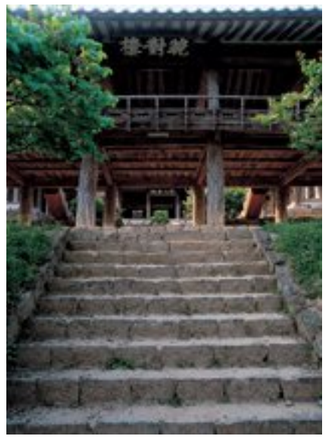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도동서원, 도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과 함께 조선시대 5대 서원으로 손꼽힌다. 조선 중기, 서원 정신이 한창 부흥하던 시기에 지어졌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등 초창기 서원 건축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특히 풍수지리에 입각해 지형에 대한 탁월한 해석이 눈에 띄고, 건물 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융통성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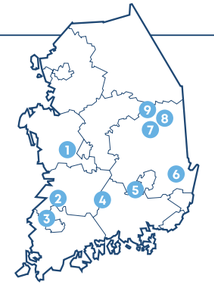
지난 7월 6일, '불의 땅'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린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조선시대 사림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서원이 성리학의 보급에 크게 기여한 점과 한국의 성리학, 즉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문화 전통의 증거인 점이 세계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로 인정 받았다.

글. 이상해(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만대루는 병산서원에서 가장 알려진 건물로서 건축과 조형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지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누각으로 휴식과 강학의 복합공간이다. 팔작기와집에 홑처마로 된 이 웅장한 건물은 인공적인 서원 건축과 자연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서원(書院)은 성리학 이념에 바탕을 둔 지방 엘리트인 사림(士林) 세력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활동 근거지에 건립한 성리학을 교육하던 기관이다. 사람들은 서원을 통해 돌아가신 스승의 신위(神位)를 사우(祠宇)에 모시고 제향하며 그의 학덕을 본받아 맑고 올바른 정신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고, 강당을 세워 그곳에서 경서(經書)의 강독과 토론을 통해 지식을 몸으로 실천할 방법을 터득하고 공론을 형성했으며, 누각을 세워 서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흠상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서원은 이러한 교육의 기능을 넘어 점차 성리학의 보급과 실천, 지성사적, 사회적 활동 기능을 수행하는 지성 문화의 요람으로 발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이다. 한국의 서원이 지닌 유산 가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관건이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충족한다.



9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1 **돈암서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041-736-0096

2 **무성서원**
전북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063-539-5184

3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061-394-0833

4 **남계서원**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055-960-6114

5 **도동서원**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053-659-4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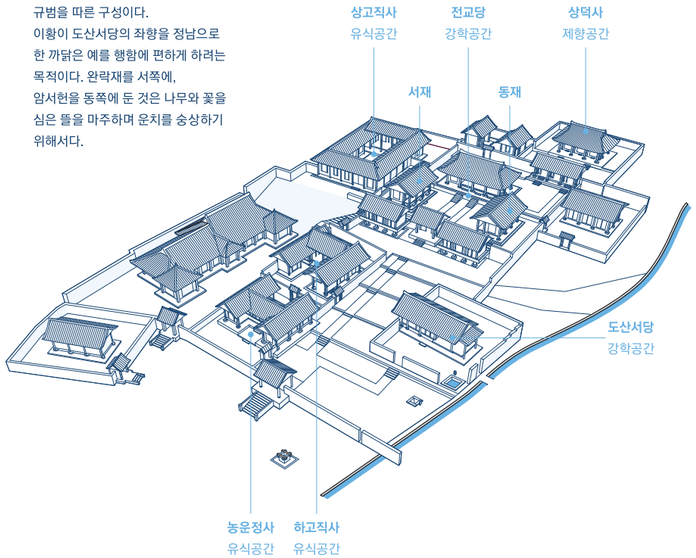
6 **옥산서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054-762-6567

7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054-858-5929

8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054-856-1073

9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054-639-7691~5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서원과 서당 영역으로 나뉜다.
서원의 강학공간인 전교당은 높은 기단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재와 서재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 있다. 이 일곽은
엄격한 좌우대칭 배치로 강학공간으로서의
규범을 따른 구성이다.
이황이 도산서당의 좌향을 정남으로
한 까닭은 예를 행함에 편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완락재를 서쪽에,
암서헌을 동쪽에 둔 것은 나무와 꽃을
심은 뜰을 마주하며 운치를 숭상하기
위해서다.



서원을 구성하는 건축 공간에 위계질서를 세우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전저후고(前低後高)의 경사지에 자리를 잡았다.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경사지에 세워지는 서원은 강당을 앞에 두고 사우를 뒤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식을 취했다. 지대가 낮은 곳에는 강당과 재사(齋舍)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을 두었고, 지대가 높은 곳에는 사우를 중심으로 하는 제향공간을 두었다. 제향공간을 서원 영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독립 공간으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사우에 모신 스승의 신위가 높은 존경의 대상임을 표현한 것이다. 경사진 땅을 이용하여 뒤부터 앞으로 제향공간·강학공간·유식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성격이 다른 공간들에 위계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형을 극복하고 사상을 건축으로 구현하다

서원 건축과 같이 완만한 경사지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적 깊이를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하며, 전면으로 펼쳐지는 경관을 건축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지형의 이용 방식은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건축"이라는 한국 건축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준다. 성리학자들의 천인합일 사상을 배경으로 성립된 서원에는 이러한 한국 건축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다

서원을 비롯한 한국 건축은 터의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터가 건물들을 대칭으로 배치하여 중심축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원은 전체적 구도의 평형을 추구하는 건축의 전형을 보여준다. 구도의 평형을 추구하는 것은 단위 건물들을 앉히고 조직하는 방식을 주변의 지형 조건에 따르게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서원은 좌우대칭과 직선의 중심축을 엄격하게 지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대칭을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서 건물 배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오히려 건축 공간에 율동과 생동감이 돌게 한다. 엄격한 좌우대칭과 중심축을 강조하는 건축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구도의 평형을 추구한 서원은 역동적 균형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를 허물어 자연을 최대한 끌어들이다

서원은 뒤로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며 탁 트인 곳에 세워졌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러한 터가 심신을 수양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학습하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특유의 건축 공간과 서원 경관을 만들어냈다. 서원 건축은 주변의 산수로 얽혀지는 자연을 최대한 서원의 건축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서원 건축은 내부인지 외부인지 분명히 구별하기 어려운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상호관입하는 건축, 더 나아가 건축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건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건축 전형을 만들어낸 바탕에는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은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이 깔려 있다.

위.
도산서원 강학공간인 전교당.
아래.
대칭을 이루는 서광명실과 동광명실.
광명실은 책을 보관하는 서고로서
오늘날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절제와 맑음의 미학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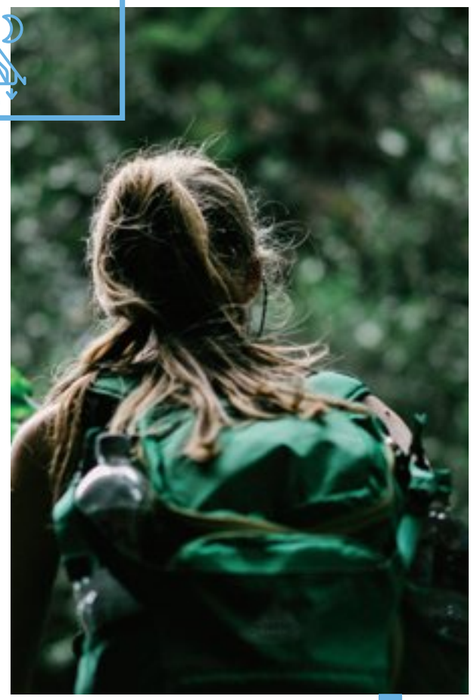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있다. 서원을 경영한 사림들은 당대의 지배계층으로서 재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최고의 건축을 조영할 수도 있었지만, 서원의 규모는 크지 않고 건물들은 담담하고 소박하다. 이러한 건축 특성은 성리학이 중요시하는 절제되고 검박한 미학에서 나온 것이다. 화려함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대자연을 자기 안으로 수렴하며, 검박함과 질소(質素)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리학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성리학자의 정신이 반영된 절제미와 건축 형식의 단아함이다.

이상해
글을 쓴 이상해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설계 전공으로 건축학 석사학위,
건축사 전공으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
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며,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캠핑, 어디까지 해봤니?

캠핑을 취미로 즐기는 캠핑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캠핑 문화도 급성장하면서 캠핑을 즐기는 방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자연을 온전히 만끽하는 백패킹부터 차에 장비를 가득 싣고서 여유롭게 캠핑을 즐기는 오토캠핑, 캠핑의 즐거움과 호캉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럭셔리 캠핑 글램핑까지 선택지는 다채롭다.
취향과 목적, 예산 등을 고려해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캠핑을 즐겨보자.

BACK-PACKING



AUTO CAMPING

GLAMPING

© 가평 바위솔 온더락 (설계 및 시공: 건축공방 / 사진: 임준형)

camping

	백패킹	오토캠핑	글램핑
	사전적 의미로는 '짊어지고 나르다'로, 야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넣은 배낭을 메고 1박 이상의 여행을 떠나는 캠핑을 말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을 말한다. 최근에는 흔히 '카라반'으로 불리는 캠핑용 자동차, 즉 주방·침실·욕실 등을 갖춘 캠핑카 이용도 늘고 있다.	화려하다는 뜻의 '글래머러스'와 야영을 뜻하는 '캠핑'의 합성어다. 쉽게 말하면 겉은 텐트, 속은 특급호텔로 비유할 수 있다.
Who	<나는 자연인이다>나 <정글의 법칙>을 자주 보는 이들이라면. 단, 배낭을 짊어질 체력과 야영을 즐기는 모험심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자동차가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수고를 대신해주지만, 캠핑의 본질인 자연과의 동화를 지키며 진정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가끔 떠나는 캠핑을 위해 고가의 캠핑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캠핑에 대한 로망은 있지만, 그 수고스러움은 싫다면.
What	백패킹에 필요한 장비는 크게 운행 장비(배낭, 등산스틱 등), 주거 장비(텐트, 침낭, 매트 등), 취사 장비(버너, 코펠 등), 의류(신발, 장갑 등), 기타(랜턴 등)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4가지 장비로 신발, 배낭, 침낭(매트리스 포함), 쉘터(텐트)를 꼽는다. 특히 신발은 고어텍스 원단을 고르고, 배낭은 1박 이상 야영을 할 경우 60리터 이상을 고를 것.	오토캠핑은 오토캠핑장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캠핑 장비를 사이트까지 이동해야 한다. 수도, 전기, 화장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이 야영장에 갖춰져 있으나 캠핑에 필요로 하는 장비는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 반면 캠핑카는 그 수고스러움을 대신해준다. 캠핑카 대여 비용은 일반적으로 평일 기준 1박 2일에 25만 원, 2박 3일에 45만 원 정도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상향 조정된다.	글램핑은 현대인이 원하는 모험과 편안함이 공존한다. 텐트 안에 고급 카펫이나 매트가 깔려 있고 무선인터넷은 기본, 수풀 속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불편함도 당연히 없다. 바비큐를 잘 구워야 하는 가장의 부담감은 셰프가 대신하고, 전날 바리바리 준비해야 하는 음식 재료도 호텔에서 제공한다. 그야말로 몸만 가면 되는 것. 물론 직접 몸을 움직일 때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은 덜하다.
Where	산에서 텐트를 쳐도 될까? 가능한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 국가 지정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지정장소, 생태계 보존 지역 등은 취사는 물론 야영도 금지한다. 이런 곳을 제외한 국유림 야산은 야영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산불방지 기간(보통 11월 초중순 - 12월 중순 / 2월 중순 - 5월 중순)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있으니 미리 알아볼 것.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개가 넘는 오토캠핑장이 존재한다. 산과 들, 계곡과 강, 호반과 해변 등 다양한 환경과 입지 조건의 오토캠핑장을 두루 만날 수 있다. 다만 시설이 너무 열악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이름난 곳은 성수기가 되면 이미 자리가 동 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미리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을 할 것. 캠핑장 이용료는 대개 1박에 1만 원부터 3-4만 원 선이다.	글램핑은 유럽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상류층을 위한 캠핑 문화로 자리 잡았다. 글램핑 문화가 정착된 북미와 유럽은 한 채에 수억 원인 고가의 텐트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천만 원짜리 글램핑 패키지도 쉽게 동이 난다. 국내의 경우 10여 년 전 특급호텔에서 첫 선을 보인 후로 최근에는 많이 대중화가 되었다. 가격은 1박에 10만 원 선부터 20-30만 원까지 다양하다.
Wish	전문가들이 꼽는 전국 백패킹 성지 - 여주 강천섬 - 고창 선운산 - 영남 알프스 - 정선 연포마을 - 장성 방장산 - 평창 장암산 - 강릉 괘방산 - 정선 민둥산 - 고흥 마복산 - 제주 높은오름	카라반을 체험할 수 있는 곳 - 홀리데이파크 - 자라섬오토캠핑장 - 새만금오토캠핑장 - 양양카라반파크 - 망상오토캠핑리조트 - 지리산카라반파크 - 인제 솔방울펜션 - 한탄강관광지 - 왕산오토캠핑장 카라반 - 덕유산 카라반리조트	요즘 뜨는 가족 글램핑장 - 가평 바위숲 온더락 -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 가평 라벤트리 - 켄싱턴 플로라 호텔 - 한글도서관 서산글램핑 - 느랭이골 글램핑 - 캠프통 아일랜드 - 월드니스 리조트 - 더 시크릿가든 캠프지라운드 - 거제 생각속의집
WWW	유튜브 — 도토리TV 9만여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파워 유투버. 장비 구입 방법 등 백패킹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유투브 — 플라잉웨일 실제 캠핑카를 이용해 캠핑을 즐기는 라이브 여행기. 캠핑카에 대한 세세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준다.	네이버 카페 — 캠핑퍼스트 캠핑 초보자를 위한 정보가 한가득이다. 카페에서 '글램핑'을 검색하면 다수의 실제 후기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백패킹 980g>(고오한 저, 성안당), <여행의 로망, 캠핑카 스토리>(임운석 저, 예조원)

당신을 팔로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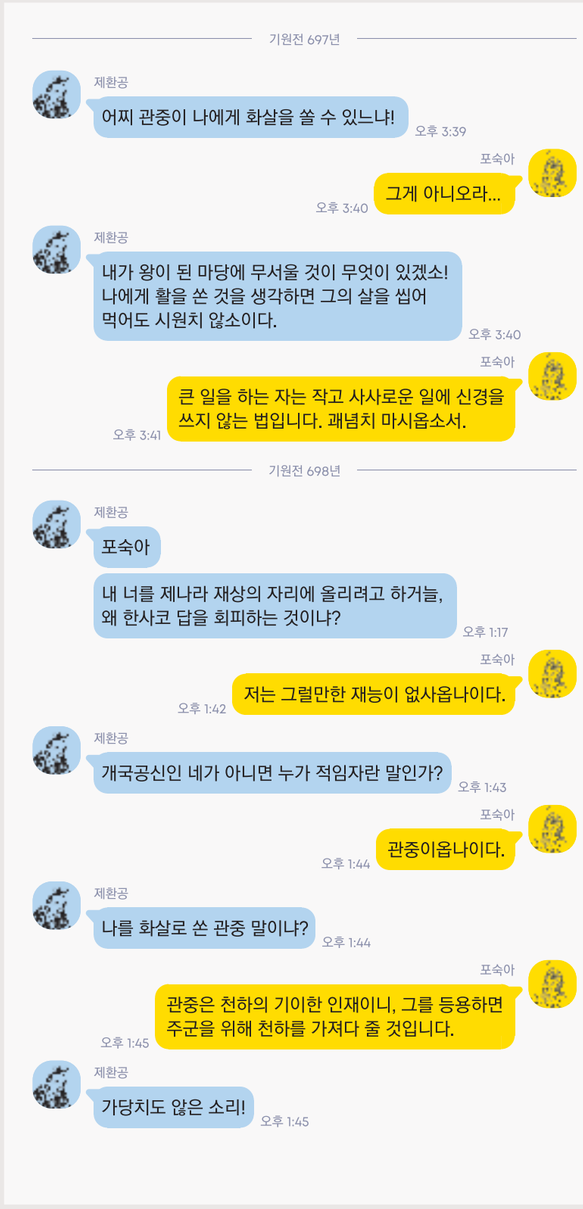
관포지교 속 팔로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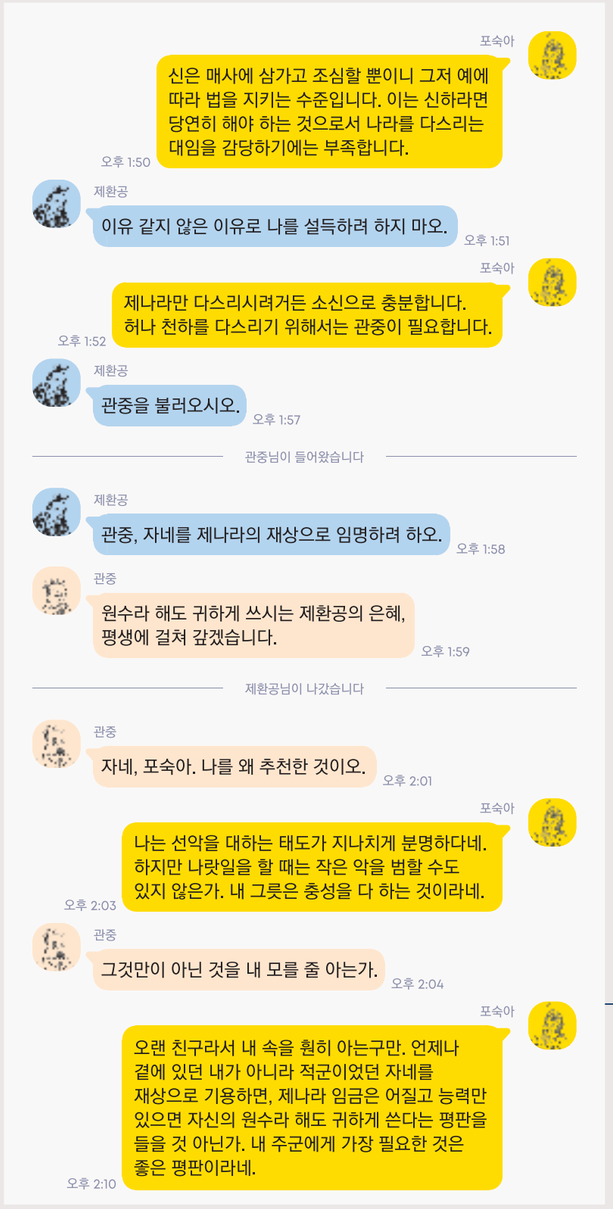
인간이 오늘의 좌표를 가늠하고,
내일을 헤아리는 것은 역사기록 덕분이다.
사마천이 쓴 위대한 역사서 <사기>의 일화를
통해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요체를 공부해본다.

글. 김영수(사학자, 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

변치 않는 우정을 가리키는 고사성어 '관포지교'의 주인공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 포숙). 우리나라에서는 우정의 대명사로 통하지만 중국에서 관중은 제자백가의 반열에 오르고 '관갈(管葛, 관중과 제갈량)'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명재상의 대명사로 통한다. 사마천은 위대한 역사서 <사기> '관안열전'을 통해 관중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포숙아를 관중의 기록에 덧붙여 후대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했다.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칭송하기보다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포숙아를 더 찬미했다." 또한 포숙아는 가장 친애하는 벗, 관중으로부터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숙아"라는 찬탄을 듣기도 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제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든 포숙아의 재능과 인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때는 춘추시대 초기. 죽마고우였던 관중과 포숙아는 왕권 후보가 난립하던 시절에 서로 다른 차기 임금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 지금으로 치면 두 사람은 보좌관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제가 생겼다. 관중이 포숙아가 모시던 차기 왕세자, 제환공(齊桓公)에게 화살을 쏜 것이다.





"리더에게 팔로어십은 리더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포숙아의 고귀한 정신을 칭송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그것은 포숙아의 숭고한 팔로어십이었다. 관중의 능력을 잘 알고 있던 포숙아는 환공을 설득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재상 자리를 그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기꺼이 관중 밑에서 일했다. 참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양보의 정신, 즉 팔로어십을 발휘했다.
오늘날 우리 조직문화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를 들라면 팔로어십이라 할 수 있다. 리더는 넘쳐나는데 리더십은 좀처럼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리더에게 팔로어십은 리더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리더는 환공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조차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하고, 참모와 구성원들은 포숙아처럼 사심을 버려야 한다.
리더가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다. 누구든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세상이다. 리더십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질이 결정되고, 참모와 구성원이 어떤 팔로어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리더의 길은 달라진다. 모두가 알고 있는 '관포지교' 고사에 이런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다.

김영수
글을 쓴 김영수는 사마천의 고향인 중국 섬서성 한성시 사마천학회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마천과 <사기>를 역사 현장과 결합해 심도 있게 연구해오고 있다. 현재는 10년째 <사기> 완역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통해 중국을 한층 깊게 들여다보며 중국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해 포숙아의 팔로어십에 관한 이야기를 오디오 콘텐츠로도 만나보세요!

함께 웃다,
함께 시작하다

대우건설의 이번 신사옥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만의 변화가 아니다. 일부 흩어져 있던 임직원을 한 지붕 아래로 모아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의 혁신을 이뤄낼 대장정의 시작이다. 5월 완공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6월. 높은 기개를 가득 채워 Build Together를 이뤄낼 대우건설인들의 6월 이야기를 전한다.

#1 ceremony

새로운 시작, 결의로 채우다

지난 6월 3일, 대우건설의 당찬 첫 시작을 알리는 사옥 이전 기념 입주식이 신사옥에서 열렸다. 김형 사장은 물론 본사 임원 및 선임팀장 등이 모여 신사옥 입주를 축하하는 시간이었다. 높은 천장고와 참 잘 어우러지는 대형 스틸 작품 아래 선 그들의 모습이 아직은 조금 낯설기도 했다.

설렘과 엄숙함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을지로 시대의 개막'이라 적힌 현수막이 시원하게 아래로 펼쳐지자, 김형 사장이 말문을 열었다. "건설산업 성장의 중심에 서 있던 서울역 시대를 거쳐, 세계 무대에서 대우건설의 위상을 드높이고 주택 공급 1위를 견인했던 광화문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을지로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회사의 존립과 맞물린 중요한 시기입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성장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열어낼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의지와 당부의 말을 전하는 김형 사장의 모습에 임원들 역시 생각이 절로 많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준비가 있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을지니, 결의를 모아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시루떡 커팅식이 진행됐다.

이어 함께 사옥을 둘러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식당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강당, 카페테리아, 대회의실 등 주요시설을 함께 보며 곳곳의 담당자를 만났다.

담당자들은 자부심 넘치는 눈빛으로 시설을 소개했고, 이를 듣던 몇몇 임원들의 입에서 감탄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색다른 추억을 만드는 오후의 선율

직원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업무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대규모 이사에 힘쓴 직원들에게 여유를 선사할 '신사옥 이전 기념 콘서트'다. 바쁜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인 임직원들이 푸르지오 아트홀을 가득 채웠다. 공연의 시작을 알린 것은 '바싸르 콘서트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홍은영.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의 곡으로 직원들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어질 때쯤, 콘서트 본무대로 뮤지컬배우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등장했다. 뮤지컬은 물론 방송, CF까지 섭렵하며 인기를 몰고 다니는 이들이다. <그리스>, <지킬 앤 하이드> 등 잘 알려진 뮤지컬 작품의 곡이 이어졌고, 화려하고 풍부한 가창력은 물론 유쾌한 입담까지 갖춘 부부는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풀어내며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다.

#2 concert

#3 hof day

함께 즐기는 맥주 한 잔의 일탈

동료들과 함께 마음껏 웃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가득 먹고 마실 '호프데이' 행사다. 황금빛 맥주와 잘 차려진 음식에 임직원들은 벌써부터 한껏 들뜬 모습. 사무실에선 볼 수 없던 서로의 다른 표정에 웃음이 빵 터진 직원들도 곳곳에 보였다. 무대에 등장한 김형 사장이 직원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므로, 그 시작을 신중하고 힘차게 해나가자"는 조언이었다. 그리고 건배 제의가 이어졌다. "대우건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다같이 전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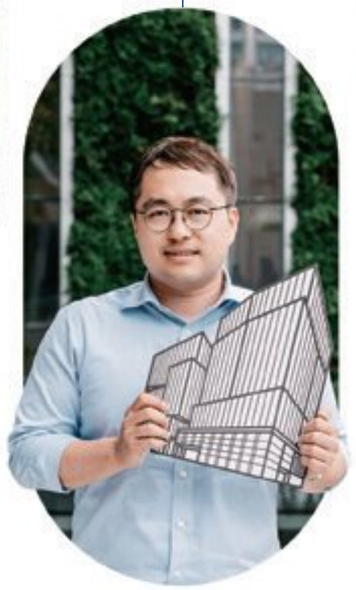
가득 찼던 맥주가 점차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가 진행됐다. 본부 대표로 참석한 이들이 하나같이 매서운 표정을 지었다. 간발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자 승리의 환호성과 아쉬움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김형 사장과 집행 임원들은 테이블 곳곳을 돌며 임직원들에게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정상까지 조달! 조달! 조달!", "주택시장엔 푸르지오가 넘버원" 등 각 본부의 특성을 살린 건배사가 울려 펴졌다. 평소 마주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들과 잔을 부딪히는 것은 언제나 즐거울 따름. 격려와 칭찬이 오가며 직원들의 얼굴에 훈훈한 미소가 번졌다. 경품 추첨을 끝으로 준비된 행사는 마무리되고, 몇몇 직원들은 자리에 남아 여운을 즐기기도 했다. 비록 모든 임직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오늘 채워낸 에너지가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본다.

신사옥 입주를 축하합니다!

새 집으로의 이사는 언제나 설레는 법이다.
신사옥 이전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직원들의 다짐과 응원 한 마디.

을지로가 특별한 동네로
떠오르는 이유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공존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고유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더하며
어제보다 더 특별한 대우건설을
만들어갑시다!

인사팀
정지혜 대리



우리 회사의
사옥 이전으로 을지로는
서울 新 르네상스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과 성과는
이제 새로운 역사이자,
희망찬 미래의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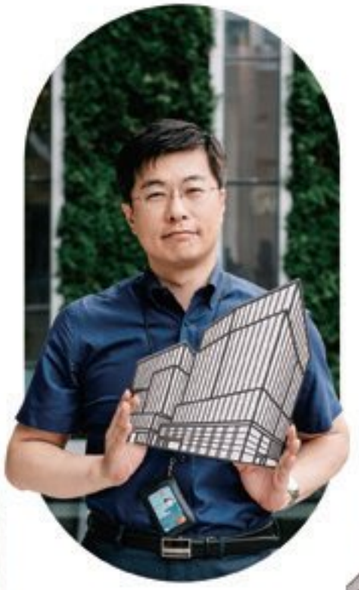
홍보팀
이중호 과장

새로운 사옥,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시절의 첫 출근 기분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옥 이전이 대우건설의
새 출발을 의미한다면,
그 분위기에 힘입어
저 역시 남은 꿈을 위한 도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기계장설계팀
최동주 사원

새로운 장소는 언젠가
다짐했던 저의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을지로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택건축기획팀
김연미 사원



It's Possible!
Build Together!
지난 10년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을지로에서
밝아올 새로운 10년을 위해
임직원 모두 힘을 모읍시다.
대우건설, 아자아자!

총무팀
허완 차장

'을지로 시대의 개막'이라는
멋진 말처럼 '대우건설 시대의
개막'이라는 문구도 어디선가
꼭 보고 싶습니다.
현장과 본사, 위치는 달라도
각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더운 여름철인데
항상 몸 건강하세요!

CLEAR TFT
지경환 대리

대대홍 16기, 현장에 가다

직접 보고 듣는 것만큼 그 대상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대우건설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현장 견학.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이하 대대홍) 16기와 함께한 1박 2일을 따라가 본다.

월성방폐물시설2단계 현장

day 1

깊이 더 깊이, 5시간을 달려 만난 방폐물시설 현장

지난 7월 12일, 신사옥 로비에 이른 아침부터 활기찬 기운이 가득 퍼졌다. 상기된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들은 바로 대대홍 16기다. 건설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건설업과 대우건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1박 2일 견학을 위해 모였다. 첫 목적지는 '월성방폐물시설2단계 현장'. 이는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품질 및 시공관리를 전담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에 참여 중인 현장이다. 2015년에 방폐물 1단계(동굴 처분시설)를 준공해 운영 중이며, 원전 해체 등에 대비해 현재 2단계를 건설 중인 곳. 현장사무실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코라디움(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관)과 동굴 견학이 이어졌다. 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별도의 Q&A시간도 이어져 대대홍 16기의 이해를 도왔다.

아산천안고속도로3공구 현장

day 2

높이 더 높이, 고속도로와 새 푸르지오 현장

견학 2일 차, 아침식사를 마치고 달려간 곳은 '아산천안고속도로3공구 현장'. '2018 건설안전 혁신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현장이다. 현재 시공 중인 사장교 견학을 위해 30m 높이의 철제 계단에서 아래 광경을 바라보며 저마다 탄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1박 2일 여정의 마지막 코스는 서울에 위치한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현장'이다. 리뉴얼 푸르지오가 적용된 곳으로, 현재 대대홍 16기가 열띤 홍보 미션을 펼치고 있는 만큼 그 기대도 남달랐다. 단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홍보 미션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무더운 여름, 대대홍과 함께한 현장 견학. 대우건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한 현장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까지 느낄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다.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현장

광주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주
지난 5월 10일, 광주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29,488m²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3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2공구 건설공사 수주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2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에 도시철도 3,454m, 정거장 및 차량기지 각 1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착공 후 54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펜타힐즈푸르지오 현장 준공
지난 5월 16일, 펜타힐즈푸르지오 현장이 경산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3층-지상 35층 5개동, 아파트 7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 현장 준공
지난 6월 20일,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 현장이 안산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원곡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2층-지상 37층 27개동, 아파트 4,0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영종하늘도시 A-9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수주
지난 6월 14일, 영종하늘도시 A-9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44,597m²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1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
지난 6월 28일,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145,197m²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

CEO 안전점검 — 별내선복선전철5공구 현장
지난 5월 22일, 김형 사장은 별내선복선전철5공구 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장의 안전시설물이 잘되어 있더라도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설물 위주의 점검보다 실질적인 안전활동에 치중해달라"고 당부했다.

CEO 안전점검 — 아산천안고속도로3공구 현장
지난 6월 25일, 김형 사장은 아산천안고속도로3공구 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품질안전실에서 공지한 안전교육 효율화 방안을 명확히 인지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CEO 카타르E-RING도로 현장 방문
지난 7월 3일, 김형 사장은 카타르E-RING도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 진행현황 및 안전사항을 점검했다. 이후 직원 간담회를 통해 회사의 현안사항을 공유했으며,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무재해 준공을 당부하며, 중동의 혹서기 무더위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보츠와나교량 현장 4개국 정상 방문
지난 5월 7일, 보츠와나교량 현장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나미비아 4개국 대통령들이 남부아프리카 환경 관련 정상회담(Elephant Summit)의 일환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남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중심이 될 이번 현장의 진행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무사고 준공을 당부했다.

대대홍 16기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실시
지난 6월 25일,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6기 40명은 성북구 일대에서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의 '동전모아 사랑 실천하기' 모금액 900만 원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에서, 대대홍 16기는 주택 노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방문해 도배, 장판 및 싱크대 교체, 단열 작업 등의 활동을 펼쳤다.

임직원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실시
지난 7월 3일, 토목사업본부, 품질안전실, 푸르지오 서비스 임직원 10명은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성북구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방문해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단열 작업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임직원들의 '동전모아 사랑 실천하기' 모금액 350만 원도 전달했다.

LNG 경쟁력 세미나 개최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LNG 경쟁력 세미나'가 지난 5월 9일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 생산기지에서 개최됐다. IR팀에서 주최하고 플랜트사업본부에서 지원한 이번 세미나는 회사가 시공에 참여한 평택기지 현장을 견학하고, LNG 분야의 경쟁력과 해외 LNG 플랜트의 입찰 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건강희망상자 나눔 봉사활동 실시
지난 5월 11일,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희망상자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임직원과 가족 150명이 참석하여 6가지 곡식을 담아 풍부한 영양소를 갖춘 건강희망상자를 만들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소외계층 360가정에 전달된다.

2019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
지난 7월 4일,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19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경주거문화대상은 건축미, 편의성, 친환경성, 고객만족 등이 탁월한 주거시설에 주어지는 주택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는 초지1단지, 초지상단지, 원곡3단지 등 3개 재건축조합을 통합 개발한 총 4,030가구 규모의 메머드 단지다.

동탄역푸르지오 자연사랑 플러스 서비스 제공
지난 7월 4일과 5일, 동탄역푸르지오에서 라이프 프리미엄의 일환인 자연사랑 플러스 서비스가 제공됐다. 입주민 21명은 이번 행사에서 정원 산책, 가드닝 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회사는 입주민들이 더욱 풍성하고 차원 높은 삶을 누리도록 단지별 특성에 맞는 라이프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인 5+6월호 독자 의견

1등 씨켓 음식물 처리기

공정설계팀 김용찬 대리

'신사옥 을지 트윈타워'에 대한 스페셜 리포트 칼럼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에게도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테마별로 자세하고 재미있게 표현되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서울역을 시작으로 광화문을 거쳐 대우건설의 새로운 둥지가 될 을지로 사옥에서 또 한 번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어 가족과 지인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만큼, 저부터 대우건설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BUILD TOGETHER! 모두 파이팅!

2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박아진(플랜트견적1팀 민수기 과장)

이번 호에 실린 '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시스템'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이 늘 궁금했었거든요. 급속시공을 통해 이뤄지는 첨단 시공방법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네요. 저희 아들은 남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곤 해요. 아들에겐 히어로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든 대우건설인을 응원합니다.

프리콘TFT 차윤호 과장

'성과를 내고 사람을 얻는 신뢰의 법칙' 기사가 제게 참 유익했습니다. 조직을 이루는 근간이 신뢰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조직의 리더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에게 자율적 행동을 보장할 때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저를 믿어주고 신뢰할 때 저 역시 더욱 열심히 일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인 모두 신뢰를 근간으로 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등 기프티콘 2만원 상당

수성레이크푸르지오 현장 이재홍 사원

세종은 업적에 있어선 역대 최고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대주의만큼은 조금 과하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보의 '세종에게 배우다' 기사에 나오는 집단지혜를 통한 그의 외교방식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애민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세종의 집단지혜를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관리팀 진성호 대리

'세운6-3오피스빌딩 현장'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새로운 을지로 사옥 시대를 열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현장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옥의 장점은 수려하고 깔끔한 외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과 첨단 친환경기술의 집약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내외 건설환경은 조금 어렵지만, 을지 트윈타워에서 대우건설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민정(현장준비반 최종세 과장)

'현장에서 찾은 지혜' 칼럼에서 신사옥 을지 트윈타워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산의 기운을 받아 다시 한번 세계로 도약하는 대우건설이 되기를 직원 가족으로서 바라봅니다. 3년간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신 모든 임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모든 대우건설인들 고생하셨습니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02-2288-1883

응모 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1등(1명) — 일리 커피머신
2등(2명) —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3등(3명) — 기프티콘 2만원 상당

광고해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건설 산업의 변화와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와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책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담은 해답서"

주택건축사업본부 김선근 상무가 쓴 <건설 산업의 변화와 미래>는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을 접목하여, 건설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갈 방법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은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군의 화두다. 산업에서는 물론 개인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알아야 할 현실이기도 하다. 김선근 상무는 건설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은 물론 U-City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터득한 이론을 이 책에 녹여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비롯해 사물인터넷,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미래 핵심기술이 건설현장에 어떻게 융합돼 활용되고 있는지를 다루며 4차 산업혁명과 건설업계를 조망했다. 김선근 상무는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 VE 자문위원, 스마트홈 기술발전협의체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김선근 지음 | 한솔아카데미 펴냄 | 18,500원

[말레이시아 IB타워]

말레이시아 하늘과 함께 빛나는 랜드마크

대표적인 초고층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세계 마천루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부심의 역사를 **잇다**
대우건설이 **있다**

대우건설

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천사대교]

주민과 지역의 꿈이 함께 커가는 천사대교

6개의 섬과 육지를 하나로 연결한 희망의 다리로
주민의 행복도, 지역의 미래도 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잇다**
대우건설이 **있다**

대우건설

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S-OIL RUC]

고도화 기술과 함께 완성한 고부가가치

정유공장의 잔사유(殘渣油)가 고도화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잇다**
대우건설이 **있다**

대우건설

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서가 함께 하나 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안까지 더 빠르고 편하게 통하는 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상생의 길을 **잇다**
대우건설이 **있다**

대우건설